

보도시점 2026. 7. 16.(목) 업무보고 종료 후 배포 2026. 7. 15.(수) 12:00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7월 16일(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생명존중 복지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상반기 주요성과 】

질병관리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 안정적 탄력적인 질병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지난 6월 방역·사회대응, 의료대응, 접종대응, 연구개발 등 4대 분야에 걸쳐 감염병 위기 유형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6.10.) 하였다.

두번째로,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의 확산 위기 속에서도 국내 유입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있다. 지난 5월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가 확산되자, 질병관리청은 즉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5.17.)하고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국내 유관기관 및 아프리카 CDC 등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등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였다.

셋째, 국가예방접종에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을 실현했다.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17세 여성청소년 등에서 12세 남성청소년까지 확대(5월)했다. 시행 두 달 만인 6월 30일 기준 남성청소년 접종률이 14.6%로, 4개월 먼저 시작한 12세 여성청소년 접종률(14.1%)을 이미 앞질렀다.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짧은 기간 안에 국민의 실질적인 접종 참여로 이어졌

다는 점에서, 형평성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인 사례로 평가된다.

넷째,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저단백 즉석밥 등 특수식이 필요한 희귀질환자(28개 질환, 19세 이상)를 위해 생산업체((주)CJ 제일제당) 및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특수식 구매지원체계를 구축(6월)했다. 기존에는 제한된 특수식 생산에 따라, 개당 최대 13,000원에 이르는 비용과 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불안정했으나, 개선 이후에는 민·관 업무협약에 따른 추가 생산을 통해 개당 1,700원의 가격과 생산 물량을 안정화하여 공급 불안 문제를 해소했다.

【 하반기 7대 핵심 추진과제 】

< 주요 핵심 추진과제 >

-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 : 사회대응매뉴얼 제정, 의료대응체계 정비
-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2상 착수,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 추진
- 국가예방접종 신속도입 체계,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 마련
- 폭염 대비 온열질환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① 신종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진행중인 국외 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개선한다. 국외 발생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국내 의심 사례 신고 시 질병청·본청·권역질병대응센터·지자체가 24시간 체계로 즉시 대응한다. 신변종·원인불명 감염병에 대비해 호흡기·출혈열·발진·설사·신경 등 5대 중후군 대상, 한 번에 확인하는 동시 검사법 구축을 완료(12월)하는 등 감염병 유입 사례 발생시 30일내 전국 검사망 구축이 가능한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분산된 감염병 병상 관리주체를 질병청으로 통합하고, 중앙-권역-지역-동네 층위별 감염병관리기관을 재지정(12월)한다. 기존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질병청에서, 긴급치료병상은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8월)하고, 감염병 사회대응에 대한 전문가 논의 구조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례포럼도 운영한다. 아울러 아·태 지역 감염병 대응

협력을 위해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12월)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② 감염병 백신·치료제 자급화

2025년 12월 임상 1상에 착수한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은 8월부터 임상2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형 AI 기반 백신개발엔진(K-AI PPX) 구축에 들어가 CEPI(감염병혁신연합) 글로벌 백신 개발 플랫폼과 연계(30년~)할 기반을 마련한다. K-AI PPX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병원체 분석, 항원설계, 임상진입까지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R&D 지원 시스템으로 구축이 완료되면 통상 수년이 걸리던 백신 개발 기간이 팬데믹 시 100/2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주도로 감염병 임상연구·분석 및 데이터를 총괄하는 기관(가칭 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 설립('30년 준공)도 추진한다. 국가 감염병 R&D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③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2030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위험지역 감시를 강화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완치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하는 한편 매개모기 집중 감시 및 방제도 병행한다. 금년 상반기 확대된(300개→800개) 표본감시기관을 기반으로 시도별 감시 통계를 산출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카바페넴항생제내성균(CRE) 증가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위험요인 기반 맞춤형 중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지방·중소병원 대상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급 참여기관을 추가 모집(11월)하고, 병원급 협업 네트워크 운영 체계도 마련(12월)한다.

④ 국가예방접종 체계 고도화

품목허가부터 국가예방접종 도입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가예방접종

도입체계를 개선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개선된 체계에 따라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보군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성이 확인된 HPV 9가 백신, 고령층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고령층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등은 우선 검토 대상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

금년 상반기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백신 품질 관리 이슈가 부각되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9월까지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품질 이상 신고 절차 개선, 신속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자발적 신고 외에 능동감시를 도입해 이상반응을 조기에 인지하는 체계도 갖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신규 및 재심 보상 청구를 본격 심의하고 소통지원팀을 신설해 피해보상 청구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⑤ 비감염성 질병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없는 시도(2개)에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27년, 19개소→21개소)하여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은 '27년 간병비·인공호흡기 지원 대상질환, 극희귀 질환 등부터 우선 폐지하고 '28년까지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폐지하여 환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만성질환통합관리센터(가칭)로 개편하여, 지원대상을 현 30세 이상의 성인에서 전 연령으로 전환하고, 운영개소 수도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 실태조사와 한국형 노쇠예방 표준사업 모형을 개발하며, 소아비만 지역맞춤형 중재 프로그램 개발, 소아청소년 1형 당뇨 레지스트리 구축 등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⑥ AI·데이터 기반 미래 질병관리 전환

AI 기술을 활용한 질병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핵심 선도과제를 발굴하여 「질병관리 AX 중장기전략」을 수립한다.

AI를 활용한 4종의 질병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자 (연 23만 명) 대상 맞춤형 건강습관 리포트를 제공하고, 해외 감염병 정보 자동 수집·다중언어 검역조사 지원, 역학조사·위험평가 고도화 및 감염병 특화 AI 챗봇, 허위정보 실시간 탐지 체계를 도입한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수두 등 5종 감염병-예방접종 연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 연계·표준화를 지원하는 「질병데이터ON」 플랫폼 구축을 이어간다.

⑦ 미래 건강위해 선제 대응체계 구축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열사병 등 5종의 온열질환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의한 국민 건강영향 파악을 위해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밖에 손상 등 건강위해요인을 대비하기 위해 노인 낙상 등 생애주기별 손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 환자 피폭선량 저감을 위해 국가선량 관리시스템 내실화, 의료방사선 관련 소아 임신부 안전관리 지침도 개발한다.

【 그 밖의 추진과제 】

지역완결형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을 수도권 9개소에서 전국 15개소로 확대한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준공, 「국립심뇌혈관센터」, 「국립건강노화연구소」 설립 추진 등 지역 특화 연구 기반 확충도 계속되며, 비영리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잠복결핵감염자 취업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 개정 등 국가정상화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 등 국외 감염병 위협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왔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이라는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위기대응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백신·치료제 국산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생명존중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별첨> 1. 2026년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계획
2. 2026년 질병관리청 주요 업무계획 요약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찬수 (043-719-7010)
		담당자	사무관	김승혁 (043-719-7221)
			주무관	조영 후 (043-719-7229)
담당 부서 <협조>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연구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백선경 (043-719-7730)
		담당자	사무관	김영대 (043-719-7702)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선규 (043-719-7120)
		담당자	사무관	송신정 (043-719-7128)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9050)
		담당자	사무관	노병권 (043-719-9051)
	진단분석국 진단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재선 (043-719-7840)
		담당자	사무관	조 훈 (043-719-7849)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 진 (043-719-8350)
		담당자	서기관	고한슬 (043-719-8352)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유미 (043-719-7380)
		담당자	사무관	정혜원 (043-719-7382)
	건강위해대응관 손상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10)
		담당자	사무관	이지연 (043-219-2911)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연구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민 (043-719-8010)
		담당자	연구관	김승우 (043-719-8011)